



‘감마(γ , gamma)’

질량의 단위로서의 1mg의 1/1000. 마이크로그램(μg)은 계량법으로 정해진 단위로서 1mg의 1/1000을 지칭함. 감마라는 단위는 그 별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함. 화학 분석과 정밀한 증량측정에 사용함.

‘강하먼지’

대기의 입자상 물질 중에 지름이 $10\mu\text{m}$ 이상으로 무거워 곧장 지상으로 강하하는 것. 비의 작용으로 지표면에 강하하는 것도 강하먼지라 한다. 또한 입자의 지름이 $0.1\sim 0.15\mu\text{m}$ 으로 공기중에 부유하는 것을 ‘부유먼지’, $10\mu\text{m}$ 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부유입자상 물질’이라 한다. 석탄이 주연료였던 1970년대 초반까지 주요 공업도시의 강하먼지량은 상당히 많았지만, 석유와 청정 연료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급속히 줄어들었다.

‘강수량’

강수가 모두 지표에 고였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수심. 눈이나 우박은 녹아서 물이 된 것으로 치고 측정단위는 mm.

‘개발도상국’

세계 정세는 동서대립이 무너지는 것을 계기로 남북(선진국 : 개발도상국) 대립이 국제적인 초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인구의 20%에 불과한 선진 공업국이 에너지 자원 전체의 80%를 소비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10%에 불과한 사람들이 지구자원의 대부분을 독점 사용하고말 것이라고 한다. 귀중한 자원이나 부가 어떻게 널리 인류에게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는가는 중요한 과제다. 개발도상국의 누적채무는 1조 수천억 달러라는 거액으로 팽대하여 이자를 탕감하는 것만으로 무역 수익이 모조리 사라져 버리는 나라도 많다. 근대화와 경제발전을 목표로 공업제품이나 플랜트를 적극 도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빚을 진 개발도상국은 자급자족적인 농업보다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단일경작 작물생산에만 더욱 더 매달리게 된다. 개발도상국의 굶주림이 심각해지는 현상은 자국의 식량자급이 아니라 잘사는 선진국을 위한 상품작물에 경지면적을 점거 당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농업을 조금씩 근대화하고자 도입한 ‘농업혁명’이 품종 획일화, 관개설비도입, 농약과 화학 비료 과다 이용을 낳고 전통적 농업과 농촌붕괴를 가져오는 등 대부분 소규모 농민에게는 아무런 이득도 주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인구 증가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후의 불안정화, 토양 침식, 사막화, 물 부족, 농약 오염문제 등이 개발도상국 앞에 닥친 문제다.

‘건설소음’

도로나 건물의 건설에 따르는 소음. 건설기계에서 30m 떨어져도 해머는 90dB(A), 콤프레셔와 리벳은 80dB(A), 콘크리트 브레커는 75dB(A)의 소음을 발생함. 소음규제법은 작업장소에서 30m되는 지점의 소음레벨과 작업 시간을 규제하고 있음.

‘건습구온도계’

건구온도계와 습구온도계를 조합시킨 것으로, 건구온도와 습구온도의 양쪽을 읽고, 그 온도차를 이용하여 상대습도를 구할 수가 있다. 정밀도는 좋지 않지만 값이 싸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스만 통풍건습계 등과 대비하여 부를 때는 오거스트 건습계 또는 아우구스트 건습계로도 말한다.

‘건조단열감률’

공기덩이가 팽창하여 대기로 단열적으로 상승할 때 강하하는 온도의 비율을 말한다. 건조공기에 대해서는 100m 상승하면 0.976도 하강하고, 습윤공기는 이 값보다 적게 된다. 단열이라는 조건에 대한 이론적인 기온감률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의 기온감률과 비교하여 대기안정도를 알 수가 있다.

‘건축공해’

빌딩 등을 건축할 때 공사에 사용되는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은 근처 거주자의 생활안정을 해친다. 지반 공사기, 착암기, 공기압축기 등을 쓰는 경우는 특히 심하다.

‘건축폐기물’

고층 빌딩 건설에 의한 도시 재개발과 고속도로·교량공사 등으로 잔토는 물론 건설 폐재, 폐플라스틱, 금속 쓰레기가 대량 배출되는데 이를 건축 폐기물이라 한다. 최근 매립할 장소가 부족하게 되어 불법 투기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 이것은 하천을 오염시키며 악취·가스 등 각종 공해를 발생시킨다.

‘검댕’

연소로와 연돌로부터 연기에 섞여서 발생하는 검은 가루로 1에서 20 μ 입자 지름을 갖고, 성분의 50%는 탄소이다. 생성되는 과정은 연료의 종류, 화염 생성에 따라 다르고, 발생률은 일반 연료 가운데 LPG가 가장 적고 타르가 가장 많다. 연료로서의 열손실 영향은 비교적 적지만 전열면에 부착해 열전도율을 저하시키고, 외부로 발산되어 가까운 인가, 농작물에 피해를 미친다. 때로는 화재의 원인이되기도 한다.